

# 자연휴양림·수목원 오늘부터 이용 가능

### 국립 야외시설 56곳 운영 재개...속박시설은 제외 축구장 등 공공 체육시설도 지자체 결정 따라 개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문을 닫았던 야외시설들이 하나씩 운영을 재개한다. 휴양림, 수목원 등 국립 야외시설이 22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장, 야구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4월 20일~5월 5일)' 기간에도 지자체가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에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 야외시설 중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22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 단 속박시설은 제외다. 개인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중 현재 운영을 중단한 시설도 국립 야외시설의 개방 일정과 운영 지침에 준해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속박 시설과 실내 전시관의 운영 재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후 상황이 안정되

면 야외장과 10인 이상 속소, 산림교육센터 등도 문을 여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장,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중 2만4000여개의 실외시설도 제한적으로 개방된다. 단 운영 재개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밀접접촉 등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운영할 때에는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하되, 지자체와 시설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 세부지침은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 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이용자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이용 인원-밀접접촉 강도 등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 시설에서의 행사나 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 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야영장,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전국의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 대면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시설물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됐다. 사진은 화순 백이산자연휴양림 전경. (화순군 제공)

5월 6일 이후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국립공원은 방문객의 감염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지금처럼 탐방로와 90개 시설 가운데 29개 주차장만 운영한다.

5월 6일 이후에는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내려가면 생태

탐방원, 민박촌 체류시설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전국의 공영 동물원과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한다.

공영 동물원의 실내시설,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은 2월 넷째주부터 휴업 중이며, 현재는 서울대공원 등 5개 동물원만 야외시설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독설'과 관련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보도된 김정은 위원장 모습. /연합뉴스

## 김정은 건강이상설 "중태다" "아니다"

### 각국 촉각...외신 엇갈려 CNN "수술후 심각한 상태" 로이터 "중태설에 의문제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중태라는 첩보가 입수됐다는 외신 보도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보도가 엇갈려 혼선을 키우는 양상이다.

우선 미 CNN 방송은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이 사안을 직접 아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 정부가 김 위원장이 지난주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후 위독한 상태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의 건강에 관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김 위원장의 현재 상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복수의 미 정부 관리들이 블룸버그에 밝혔다.

이명을 요청한 이 관리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주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점차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런 외신 보도는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수술을 받았다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엔케이의 보도와 비슷한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집권 후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행사에 불참해 건강 이상설을 낳고 있다.

백악관은 이 보도가 나오기 전 이미 김 위원장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AP 통신이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을 수 있고,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그보다 더 나쁜 상태일 수 있다"는 정보를 백악관이 입수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리의 김 위원장이 정말로 수술을 받았는지, 합병증이 생겼는지 여부를 미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하나하나에 관해 논평을 삼가고 싶다"며 "계속 미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싶다"고만 언급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할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 정보기술(IT) 관련 전문매체 '노스코리아테크'를 운영하는 마틴 윌리엄스는 AFP에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도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도 며칠 뒤에 공표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사라졌다가 늘 다시 나타났다. 이번 주 그의 부재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한일담당관을 지낸 민타로 오버는 블룸버그통신에 "북한 정보 확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아직 어떠한 결론에 성급하게 이르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영암 내동리 쌍무덤서 마한시대 금동관 출토

### 5세기 말~6세기 초 영산강 유역 마한 세력 존재 뒷받침

전남 영암군 내동리 쌍무덤(지방기념물 제83호)에서 마한시대 금동관이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

이번 금동관은 일제 강점기 나주 신촌리 금동관(국보 제295호) 이후 100여 년 만에 처음 출토된 것으로, 5세기 말~6세기 초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 세력 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유물이다.

영암군은 내동리 쌍무덤에서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유사한 금동관(번)이 출토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금동관은 금동대관 둥근 테의 안쪽과 양측 면에 나뭇가지 모양의 세움 장식을 세운 형태다. 줄기 위에 큰 꽃봉오리를 올리고 좌우에 2개 꽃봉오리를 배치한 게 특징이다. 또한 꽃봉오리 가운데 자리에는 연꽃무늬를 표현했고 최상단에는 유리구슬을 장식했다.

제작 시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추정되며,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유사한 형태로 보아 영산강 유역 마한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쌍무덤에 안치된 피장자 지위는 당시 고대 마한 사회의 최고 권력자로 추정된다. 현재 전남지역 452개소 마한고분군 중



영암에 약 41개소가 밀집돼 있다. 그 가운데 영암 내동리 쌍무덤 주변에 20여기가 분포돼 있다. 특히 이번 발굴에서 일본 고분에서 출토되는 동물모양 토기 등이 무덤 주변 도랑에서 출토돼, 향후 고대 마한세력의 실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다음주 초 부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 (전자손목밴드)를 다음주 초부터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현 법무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 초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방안은 가능하면 24일(금요일)까지 발표하고, 늦어도 주말까지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앞으로 2주

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운 법적 근거가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에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연합뉴스

## 한국 '언론의 자유' 세계 42위...아시아에선 1위

국가별 '언론의 자유' 실현 정도를 비교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42위에 올랐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제언론자유지수(RSF)가 21일 공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42위로 지난해 41위에서 한 계단 내려갔다. 국제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가

안정된 국가들에선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구실로 국가안보를 이용하기도 한다"며 "한국은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특히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선두 자리를 지켰다. 일본은 66위로 한 계단 올랐고 중국은 177위로 제자리를 지켰다. 미국은 3계단 올라 45위였다. /연합뉴스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